

시어와 민족어 완성의 길

김재홍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1. 한글 또는 국어의 운명

시와 언어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인다. 시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주제/내용과 '어떻게'에 해당하는 표현/형식의 상관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를 시로서 완성시켜 주는 것은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언어의 독특한 쓰임새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언어는 시를 이루는 매개체이자 방법론이고 때로는 그 목적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의 국어는 오랫동안 민족의 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말과 그 말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글이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어 왔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 및 조선조 초기까지 말은 그대로인 채 글은 한자 및 이두를 사용해 옴으로써 언문불일치를 보여온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는' 일, 즉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국어의 운명은 밝은 것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중화주의로 인해 한문은 공식문자, 즉 진서로, 한글은 비공식문자, 즉 언문으로 인식되고 사용됨으로써 국어의 운명은 여전히 말과 글의 괴리 현상을 보여 주었다. 한글은 다만 비공식적

인 표현 수단 또는 부녀자의 글로 인식되고 사용됨으로써 다만 생존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

한글로서의 국어는 개화기에 이르러 언문일치 운동이 전개되면서 민족의 어문 생활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국한문 혼용체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의 국어는 ‘한문체/국한문체/한글체’의 혼용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생활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글이 민족 생활의 중심으로 육박하게 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른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기인한 민족 문화 말살 책동으로 인해서 모어가 다시 생존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일제의 창씨개명과 조선어 사용 금지 조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어는 다행히도 선각적인 국어학자와 문인들, 특히 시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생존적인 차원에서 생활어의 차원으로, 다시 예술어의 차원으로 상승해 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시인들이 민족어로서 우리말, 우리글을 갈고 닦음으로써 우리말, 우리글의 문학적 훈련이 본격화되었고, 예술어로서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글은 8·15광복과 더불어 민족어를 적는 공식적 표기 수단이 되었고, 민족의 역사 및 생활사 그리고 정신사 및 예술사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광복이란 민족 주권의 광복이면서 동시에 민족어의 광복이었다. 이에 현대시사에서 우리말, 우리글의 문학적 훈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어의 발전 과정으로서 민족어 완성을 향한 노력의 길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2. 일제하 우리말, 우리글의 문학적 훈련

일제 강점기 36년은 그야말로 암흑 시대와 같은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폭압은 우리 민족에게 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민족혼마저도 멸실할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다. 그러기에 이상화는 “아, 가도다 쪼쳐가도다/이즘 속에 있는 간도와 요동별로/주린 목숨 움켜쥐고, 쪼쳐가도다/진흙을 밟으

로, 햇채를 마셔도/마구나 가졌으면, 단잠은 엽말 것을/사람을 만든 검아, 하
 로 일죽/차라로 주린 목숨 빼서 가거라!”(「가장 비통한 기욕 앞연)라고 망국
 의 한과 그로 인한 유량의 민족사를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중략……/그러나 지금은-들을 빼
 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노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들 또는 땅이란
 개인적인 의미에서 농토, 즉 먹거리로서의 생존권을 표상하며, 나아가서 공적
 차원에서는 영토, 즉 주권을 상징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혼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수천 년 조상의 숨결과 혼결
 이 스며들어 있는 땅(들)이란 바로 민족혼과 민중 정서의 근원이자 표상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민족어로서의 우리말과
 글은 바로 땅, 즉 국토와 하나의 등가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땅이 생존권과
 주권, 그리고 민족혼의 실제적인 표상이라면 말과 글이야말로 실제적이면서
 도 정신적인 생존권과 주권, 그리고 민족혼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바로 여기에서 일제하 우리 시인들이 전개한 한글의 문학적 훈련이 지니는 참
 된 민족사적, 문화사적 의미가 드러난다. 그들은 온갖 것이 다 박상되고 민족
 혼마저도 멸실될 위기에 처하여 우리말과 글을 갈고 닦고 지켜 나감으로써 민
 족혼과 민족정신을 살려 나아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다. 떨리는 여진,
 말갈족 그리고 가까이는 만주국을 보라. 민족어의 멸실이란 바로 국가는 물론
 민족의 쇠퇴와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일제하 시인들의 우리
 시 쓰기 작업이란 바로 우리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혼과 역사를 살려내기
 위한 가열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시인의
 궁극적인 사명이란 바로 민족어의 완성을 지향해 감으로써 민족혼을 지키고
 민족의 정서와 민족의 삶을 고양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족어를 살리고 지켜 나감으로써 민족어의 완성을 지향해 간다
 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말과 글로써 시를 쓴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글, 즉 국어가 지닌 다양한 가능

성에 대한 적극적인 창조와 발굴 및 확대와 심화 작업을 통해서 민족혼과 정서를 고양시켜 나간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집일흔 내몸이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섭대일 땅이 잇섯드면!

이처럼떠도르랴. 이춤에 점을손에

새라새롭은 歎息을 어드면서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땅이
잇섯드면」 부분

시집와서 三年

오는 봄은

거흔별난벌에 왔습니다.

- 「無心」 부분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 「접동새」 부분

인용 시구는 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에서 부분 발췌한 것이다. 말하자면 20년대 우리 시에서 우리말의 쓰임새를 들어본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월이 현대시 초기 시단 형성 과정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개성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섬세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먼저 시는 ‘점을손/새라새롭은/보섭’, ‘거흔별난벌’, ‘아우래비’ 등과 같이 비교적 생소한 말의 쓰임새를 보여 준다. ‘점을손’이란 ‘저물녘’이란 말의 옛말

이며, ‘새라새롭음’이란 ‘새롭고 새로운’이라는 강조 어구를 축약한 조어 형태이다. 아울러 ‘거즌별난별’이란 ‘광야 또는 먼 들판’이란 뜻의, 그리고 ‘아우래비’란 ‘아홉명의 오라비 동생’을 뜻하는 개인조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소월은 일상에서 잘 안 쓰이는 말 또는 고어, 방언을 활용함은 물론 개인 시어까지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소월의 시들은 그 정신적 높이나 진실의 깊이와 함께 시어의 쓰임새에 있어서도 뛰어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 담겨 있는 혼결과 숨결은 물론 살결과 섬세한 무늬결까지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확대하고 심화함으로써 우리말의 일상성을 예술성의 차원으로 고양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리치를 놓으려 아베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
아지처럼 아베를 부르며 울다가

시악이 나서는 등뒤 개울물에 아베의 신짱과 대님오리를 모다 던져버
린다

- 「오리 망아지 토끼」 부분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
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씹방이 굴리고 바리
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멧번이나 돋구고 흥게닭이 멧번이나 울어서

- 「여우난골人族」 부분

백석의 시에서는 방언의 활용과 토속어의 적극 활용이 특히 주목된다. ‘오리치/아베/동비탈/동말랭이/시악/아르간’ 등의 방언 쓰임새가 그러하며, ‘조아질하고/씹방이 굴리고/바리깨돌림하고/호박떼기하고/제비손이구손이하고’ 등

과 같은 전래 민속놀이로서 토속어의 구사가 그 좋은 예가 된다. 특히 그의 시에서 ‘오불고불/장글장글/줄레줄레/재릿재릿/쇠리쇠리/지중지중/들문들문/쓰렁쓰렁/찌락찌락/부승부승/사물사물/짱짱짱짱’ 등 의성, 의태, 부사어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활용은 주목할 만하다. 백석의 이러한 방언 및 토속어, 고어의 적극 활용 및 형용사, 부사의 개성적인 쓰임새는 평안방언으로서 주변언어의 중심부화로서 평등정신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어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민중적 삶과 민족적 주체성의 고양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30년대란 어떠한 시대이던가? 한마디로 30년대는 만주 사변에서 시작되어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궁핍과 절망의 시대에 해당한다. 특히 민족혼의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점차 억압되고 금지돼 가기 시작한 민족의 암흑기가 아니던가! 이처럼 암흑으로 치닫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인들의 민족어를 갈고 닦는 치열한 노력이란 바로 눈물겨운 민족혼 부활의 노력이자 피나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 무엇이였겠는가?

3. 8·15광복과 민족어의 확대 심화

8·15광복은 민족사의 일대 전기가 됐음은 물론 시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광복은 빼앗겼던 주권의 회복과 함께 민족적 주체성과 동질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광복은 모어인, 우리말과 글을 회복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제 말에 강요되었던 창씨개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민족 고유성 말살 정책과 강제적인 조선어 사용 금지 및 탄압 조치는 민족 정서와 정신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 문화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 넣었다.

그러므로 8·15 광복은 국가적인 면에서 주권의 회복과 함께 역사적 의미에서 민족사의 광복 및 문화사적인 면에서 모어의 회복이라는 소중한 의미

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광복이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연합국의 승리는 타율적인 힘에 의존한 요소가 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민족적인 자주·자립의 역량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좌우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미·소 제국주의의 팽창정책과 맞물려 끝내는 남북 분단이라는 또 다른 민족사적 과국으로 치닫게 되고 만 데서 그 비극성이 드러난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광복으로 말미암아, 1920~30년대 이후 지하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계급주의 문학 운동이 다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함으로써, 이른바 순수문학으로서 민족주의 문학과 정치문학으로서 계급주의 문학의 대립 양상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해방기의 시단은 정치상황적인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대립과 갈등의 혼란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 시단을 이끌어 간 사람들은 대부분 광복 전에 등단한 시인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민족 문학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도기적 난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먼저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되지 못했던 시집들이 출간되면서 민족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조지훈·박목월·박두진의 『청록집』(1946) 간행과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이육사의 『육사시집』(1946), 심훈의 『그날이 오면』, 서정주의 『귀족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조지훈 등 3가 시인의 ‘청록파’와 서정주, 유치환 등의 ‘생명파’는 6·25 동란 후 분단시대에 있어, 남쪽 문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 땅에 이른바 순수문학 또는 영원주의 문학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문학의 자율성 또는 문학성을 강조하는 순수문학적 경향은 북쪽의 정치주의 계급문학과 대립하면서 더욱 순수편향성으로 치닫게 됐지만, 문학의 본령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시어 면에서 볼 때 이들의 민족어 완성을 위한 노력은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당 서정주의 우리말 발굴과 확대 및 심화 작업은

그를 현대시사 최대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는 데 손색이 없음을 분명히 해 준다. 그는 2000년 작고하기까지 시집 『화사집』(1941)으로부터 『80소년 떠돌이의 시』(1997)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 이상 민족어의 완성을 향한 노력에 진력해 왔기 때문이다.

눈물 아롱 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西域 三萬里,

흰 옷깃 염여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巴蜀 三萬里,

신이나 삼어줄 人 걸 슬픈 사연의

올올이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혀서

부즐없은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구비 구비 은하스물 목이 젖은새,

참아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아.

- 「귀촉도(歸蜀途)」

한과 허무로서의 사랑과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처럼 한국어로 표현해 낸다는 일이 말대로 어찌 그리 쉽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별과 만남을 현세와 내세의 인연설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비극적인 세계관으로 고양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이별 시학을 슬프면서도 아름답게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유어와 방언 및 토속어, 그리고 개인적인 조어를 운율과 적절히 연결함으로써 그야말로 한국어의 비극적 황홀의 한 경지를 열어 보여 준다고 하겠다.

미당의 시는 수많은 고유어 및 고어를 되살리는 한편 방언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시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냄으로써 그야말로 우리말의 예술적 가치를 크게 고양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어에는 우리 민족의 숨결과 혼결, 살결 그리고 무늬결이 아로 새겨져 하나의 언어 교향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그의 시어와 용법은 개성적이고 독특하며 다양하다. 그만큼 그가 민족어의 완성을 위해 진력한 공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금자탑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 생활어 수준의 우리말을 예술어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려 진력해 온 공적은 문학사는 물론 민족문화사의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서정주와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 선구적인 시인들을 비롯한 뜻있는 수많은 시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시어를 확대하고 심화한 작업들은 광복 후 우리 문학의 주류로서 그 골격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음은 물론, 시어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어의 완성을 통해 민족혼의 확립과 민족 정서의 형성에 굵은 획을 그어 준 것이 사실이다.

4. 70~80년대 민족 문학과 민족어 완성의 길

70~80년대에는 흔히 민족 문학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민족이 처한 현실 문제를 탐구하면서 진정한 민족 해방, 민중 해방, 인간 해방의 길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올바른 평등의 구현을 지향하는 문학의 실천 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4·19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70년대 유신 정권의 폭압에 맞서면서 민족 주체성과 민중 정서의 구현에 문학의 기능과 효용이 강조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족 문학은 농민 문제, 노동자의 소외 문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문제, 환경 문제와 핵 문제, 외세 배경 문제, 분단 문제 및 통일 지향성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지하의 대두는 70~80년대 민족 문학 운동의 기폭제에 해당한다. 그의 「오적」을 비롯하여 「비어」·「소리내려」·「육혈포 승배」·「고관」·「오행」·「분씨 물어」 등의 담시들은 이른바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양식화’로서 민족문학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김지하는 민족적 양식으로서 고유어의 발굴은 물론 민족어의 발굴과 확대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희고 고운 실빛살

청포잎에 보실거릴 때 오시구려

마누라 몰래 한바탕 벌려놓고

도도리장단 좋아 헛맹세랑 우라질 것

보릿대춤이나 춤시다요

— 「형님」 부분

김지하의 시편들에는 사전이나 생활 속에 잠자고 있던 고유어, 방언은 물론 은어, 비어, 그리고 개인조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어들이 새롭게 숨을 내쉬고 있다. 가히 민족어, 민중어의 보물창고라고 할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들어서서 시어 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은 고은의 연작시 『만인보』와 대하 서사시 『백두산』으로 제출되었다. 지금도 진행중인 대하 연작 시집 『만인보』와 일곱 권으로 완결된 대하 서사시 『백두산』에는 고어, 고유어, 토속어는 물론 방언 등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조어와 개인 시어가 유독 많이 쓰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① 돌아가 한번 잊은 제/도로 가고 싶은/그이들의 얼바람진 산허리

— 「천은사운(泉隱寺韻)」 부분

② 아주아주 작은 노 저으며/물 가림자 이루어 타 보내며

— 「새 봄의 항행」 부분

③ 가을날 저물어 들고/ 잎새들도 아는 듯/ 제 자리마다 저 있는 대로/
언니언니 저 있는 대로/별레 소리로 어둠이 되네

— 「잎새 소곡(小曲)」 부분

김지하와 더불어 고은의 시는 민족 고유어 및 방언 등 민중 언어가 매우 다양하고 섬세하게 활용되어 관심을 끈다.

먼저 시 ①은 ‘얼바람’, 즉 얼(흔백)이 실린 바람이 덮였다는 뜻의 조어이다. 시②의 ‘가림자’는 그림자의 시적 표현으로 좀 작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또한 시 ③의 ‘언니언니’란 언니라는 명사의 정서로 만들어 사용한 표음부사이다.

고은의 시어는 고유어와 고어, 방언, 속어, 비어의 활용은 물론 특히 개인 시어를 최대한 조어해서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시집 전체가 하나의 민족어 사전, 또는 민중어 사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민족 사상이나 자유 평등 평화 사상도 의미 있는 일이고 통일 사상이나 민중 사상도 내용 있는 것들이지만 특히 민족어 완성을 위한 이러한 진력은 참으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김지하와 고은의 70~80년대 민족 문화 운동이란 기실 민족어의 완성과 등가를 이룬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족적 내용, 민중적 내용이란 그에 걸맞은 민족적 형식과 민중적 언어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관념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김지하와 고은을 비롯하여 신경림, 박용수, 송수권 등 뜻 있는 수많은 시인들, 그리고 홍명희, 이문구, 김성동 등 작가들의 민족어 완성의 노력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70~80년대 고은과 김지하를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의 민족어 탐구와 완성의 노력은 기실 멀리는 소월과 만해 그리고 가까이서 서정주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순수문학/민중문학이라는 대립 구도를 함께 관류하고 통일 지양시켜 주는 소중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노력은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지 서로 배

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5.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언어의 발달 과정을 흔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생존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어, 그리고 예술적 향취가 풍기는 예술어로 그 등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조나 일제 강점기의 국어는 생존어 차원에서 활용돼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뜻있는 문학인들에 의해 국어는 지속적으로 문학적 훈련을 거듭해 왔으며 그것은 민족혼을 지키려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오랫동안 우리말, 우리글은 한자의 질곡 아래서 생존 차원에 머물렀으며 다시 언어의 압박에 끝내는 멸실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영어를 비롯한 구미어의 급격한 유입과 혼용으로 인해 국어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근년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언어의 급격한 국어 파괴로 인해 그 고유성과 문학적 가치는 물론 생존 자체가 다시 위협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국어를 살리고 이것을 예술어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모든 민족 구성원의 책무이고 사명이다. 특히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예술적 창조자인 시인, 작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민족어를 갈고 닦는 일은 그 예술적 성패를 판가름해 주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의 시인들을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고은, 김지하, 신경림, 송수권 등 많은 시인들이 민족어의 완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은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이른바 순수문학 진영이나 민족문학 진영 그 어느 쪽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시인의 사명이자 운명적인 과제이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민족어의 완성을 지향하는 일이야말로 시인의 근본 사명이자 궁극적 존재 의미이기 때문이다.